목이 곧음이 무조건 나쁜가?

(출33:1~2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4.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목이 곧음이 무조건 나쁜가?>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목이 곧음이 무조건 나쁜가?'

'양면성(兩面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물에 공존하면서 서로 맞서는 두 가지 성질을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행'이라는 말은 패션유행이 있고 아파트도 유행이 있어서 한 때는 주상복합이 유행하기도 하고 연립주택 형식의 고급빌라가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 유행과 관계된 인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동조욕구가 있어요. '동조욕구'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가장 큰 이유는 대열에서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다수로부터 소외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동조욕구를 갖습니다. 유행도 다른 사람 모두 다 그런 스타일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동조욕구를 발동시켜 유행을 따라 가고, 반면에 개성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동시에 들어있어서 내가 입은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동조욕구가 발동될 때 내가 자동차를 샀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안심이 되는데, 개성추구의 욕구가 발동될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다른 사람도 타

고 다니면 기분이 나빠져요. BMW300, 500시리즈가 강남에서는 소나타급이라면서요? 소나타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흔하다면서요. 강남에서는 BMW를 더 이상 사지 않고 재규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차들을 선호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양면성은 서로 상반되는 성질이 무관하게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칫솔을 생각해 보시면 부드러운 칫솔모가 딱딱한 칫솔대와 결합이 돼 있어요. 칫솔질을 하게 될 때 너무 과격하게 힘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 칫솔대가 입안을 찌르게 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이에 댈 때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칫솔대는 입안의 다른 편 살을 스치고 가격하게 되면 찌르게 돼있습니다. 부드러운 칫솔모가 향하는 반대방면으로 반드시 딱딱한 칫솔대가 향할 수밖에 없고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안의 살들이 '너 칫솔은 왜 그렇게 나에게는 딱딱한 부분만 들이대느냐?'고 불평을 해서 살 쪽으로 칫솔모를 갖다 대면 치아 쪽으로 딱딱한 칫솔대가 접촉할 수밖에 없게 돼 버립니다. 이러한 특징이 또한 양면성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로 선민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러한 선민의 죄적인 상태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한 순간이라도 함께 했다가는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가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너희들을 향한 공의로운 진노가 너희들의 존재자체를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시켜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목이 곧음입니다.
이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남에게 호락호락 굽히지 아니하며 억지가 세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억지'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고집'입니다. '곧다'의 반대말은 굽거나 비뚤어지는 것인데 부정적으로 말할 것 없이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목이 곧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굽혀 버리는데 외부의 힘에 굽혀버리는 부드러움과 외부의 힘에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곧음, 뻣뻣함이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뻣뻣한 사람만 없고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사람만 없다는 것입니다. 곧음과 휨, 곧음과 굽음, 뻣뻣함과 부드러움이 양면성으로 함께 존재하는데 칫솔의 칫솔모와 칫솔대의 관계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양면성의 상호관계입니다. 칫솔모처럼 심하게 부드러울 정도로 반응하는 면이 있을 때 다른 방면으로는 심하게 뻣뻣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 뻣뻣함의 이유가 바로 부드러움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이 다른 방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는 뻣뻣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남자에게 너무 뻣뻣한 여자가 있어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오직 한 남자에게 마음이 꽂혀있어서 그 남자에게는 밸이 없고 자존심이라곤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것으로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고 저자세를 취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자세를 취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남자에게는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목이 곧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아야 될 방면으로는 목이 곧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이 곧은 것 자체를 나쁘게 보다보면 목이 곧아야 될 부분으로 부드럽게 대응하다 보니 목이 곧아야 될 부분에서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군중 속에서 설교를 할 때 행7: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로 쳐서 죽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입니까?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나무라는 뜻의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겁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목이 곧아서 죽인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 군중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대제사장의 말조차도 듣지 않을 만큼 목이 곧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목이 곧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라고 하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부끄럽고 정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자기의 위상 중에 역사상 가장 낮고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세상에 대해서는 목이 곧으셨고 목이 곧으신 정도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라면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구성에서 정상급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뻣뻣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뻣뻣하지 않았다면 순교는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부드럽게 반응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도저히 화가 나고 용납이 되지 않아서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느낄 만큼 뻣뻣하게 나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향해서 목이 곧으냐는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목이 곧고 또 다른 무엇을 향해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칫솔모와 칫솔대와 같이 어느 면을 향해서 칫솔모를 향하고 있고 어느 면을 향해서 칫솔대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쪽을 정하면 한쪽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자들이 바로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부들부들한 면을 들이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이고 세상을 향해서 부드러운 면을 들이대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칫솔대와 같이 딱딱한 면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목을 곧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부드럽게 세상 말이라면 다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세상 말은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딱하고 뻣뻣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뻣뻣한 것이며 세상의 무엇에 대해서 부들부들한 것입니까? 그게 바로 반복돼서 얘기되는 것으로 내 비어있는 마음이 가득차서 만족하게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기뻐야 사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순간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이 소모되고 있는 것이지 생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쁠 때와 행복할 때만 살아있는 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시간들이 그냥 소모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뻣뻣함과 부드러움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는 이 말을 너무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데 동조욕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돈을 추구하니 나도 돈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따라 갑니다. 너무나 부드러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기쁨이고 유일한 나의 만족의 이유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칫솔대처럼 돌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고 애굽의 황소 모양의 오시스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남신이고 개구리 모양의 헤카가 여신으로 결국 돈 많이 벌어야 잘 살고 사람 숫자가 많은 부흥이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러운 측면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내 만족의 유일한 이유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칫솔대를 들이댄 것처럼 돌덩이를 들이댄 것처럼 뻣뻣해져서 그 말을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한다면 하나님이 네 만족의 이유라고 하시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 걱정하고 불평불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곧은 것이지요. 목이 곧은 것 자체는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하여 곧으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부드럽게 남김없이 다 세상 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말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만족한다고? 천만에. 돈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관직을 얻어도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 자식들을 일류대학 보내면 만족할 수 있어. 건강과 미모를 유지하면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만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부드럽게 받아들였는데 목이 곧게 반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목이 곧은 놈아, 너하고는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뛰쳐나갔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게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께는 목이 뻣뻣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부드럽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말 한마디가 들어가질 않고 뻣뻣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다른 삶의 영역을 사는 것 같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이혼은 못하지만 함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주고는 남편 나가고 나면 내 시간을 갖는 게 내 기쁨일 뿐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뻣뻣하면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만족이고 내가 돈이 있어도 기쁨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슬픔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형통해도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고 불통해도 슬픔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만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뻣뻣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형통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라고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데 약속하신 복지를 그대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함께 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내 산 계약에 의해서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이미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복지를 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복지는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복지인가 하면 다른 민족이 차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포도원도 다 있고 집도 다 지어놓고 했는데 목이 뻣뻣하여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을 다 멸절시키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뻣뻣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과 행복의 이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일류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엘리트로 살아야 된다는 이 기준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열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것들을 주십니다.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 남 보기에 부러워 할 정도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가나안 복지를 주시는데 그것도 정복해서 주십니다. 우리의 꿈이 정복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장애를 정복하는 것인데 그 정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을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로마 식민지하에서도 자기들의 돈은 풍족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까이 하면 당장에 진멸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죄인들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되 정복을 해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돈을 많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뻣뻣함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을 버리시느라고 돈을 줘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가난하게 만드셨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부드럽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는데도 돈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형통할 수 있는데 그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무너무 서운하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기적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세가 사십일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에 풍요와 다산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한 측면을 돌려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함이 임하십니다. 사십일 만에 등을 돌리고 뻣뻣한 측면을 들이댔던 모든 선민들에게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주어 버리시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이 상황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포착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포착한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보적인 매개로 다시 화합의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장신구를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장신구 하나, 하나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이 땅에 것들에 대한 열망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으로 된 팔찌를 끼고 다니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열망이 뼛속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돈 잘 버는 게 좋으니 뼛속에 사무친 그 소원들이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장신구를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부드러움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움으로 180도 회전하고 측면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부드러움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하고 건강하면 만족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만족하고 뭘 사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부드러운 면을 들이대려고 합니다. 이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드러운 면이 세상을 향해 갈 때 십자가에 부딪혀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아파하면서 믿음으로 아픔을 느끼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움을 들이대고 세상을 향하여는 딱딱한 면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의 죄적인 방향성을 180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야만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한없이 굽히고, 굽히고 굽히는 부드러운 그러한 백성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선민의 특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 일이 잘되는 자들, 돈 많이 버는 자들, 부흥하는 자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자들, 형통한 자들, 일류대학 들어가는 자들이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인 자들이 선민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목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사람들 그리고 반대 세상을 대하여는 한없이, 한없이 목이 곧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목이 곧음과 부드러움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